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명기¹, 오윤정^{2*}

¹광주여자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²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Non-financial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Myeong-Gi Jo¹, Yun-Jeong Oh^{2*}

¹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Kwangju Women's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은 비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창업의 다양한 융합과 안정적인 창업 문화의 정착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연구의의가 있다.

주제어 : 기업가정신, 비재무적 성과, 자기효능감, 창업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is aim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piri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hypothesis was conduct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ntrepreneu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second, it suggests that the stronger entrepreneurship, the better self-efficacy. In addition, self-efficacy can produce positive results in various aspects, especially through this study, self-efficacy has resulted in improvemen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various convergence of start-up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start-up cultur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 Words : Entrepreneurship, Non-financial Performance,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Yun-Jeong Oh(agnes@nambu.ac.kr)

Received November 7,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Revised November 30,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급변하는 글로벌 창업환경에 창업자들은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를 이루면서 창업에 대한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 2]. 기업가정신은 창업자들에게 있어 기회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이자 접근방법이다[3].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업기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이다[4]. 창업자들이 창업과정에 있어 안정적인 정착과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기업가정신은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경영환경에서 창업기업의 경영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성과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6]. 창업은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빠르게 흡수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7]. 따라서 창업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을 주목하고 있으며, 창업자들의 성과,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설정하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영향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창업의 다양한 융합과 안정적인 창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다[8]. 기업가정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이어가는 행동이다[9]. 창업자들은 창업 및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발견하며, 계획을 수

립, 실행 및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기업가정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업성과를 이룰 수 있다[10]. 기업가정신은 창업자에게 적절한 대인관계가 가능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역량이다.

2.2 비재무적 성과

창업활동의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 성과는 기업경영활동의 결과물이며, 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혁신성과 등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11]. 창업환경이 복잡해지고 창업기업의 규모가 증대되면서 기존의 재무적인 성과로만 기업의 창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되어, 기업의 미래가치를 고려하는 비재무성과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12]. Fomell(1992)은 비재무적성과를 미래지향적 가치를 측정하는 장기적인 정성지표로써 재무성과의 개선을 위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13, 14].

2.3 자기효능감

창업행동모형에서 자기효능감은 창업자 개인의 창업 동기 부여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15], 창업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16, 17].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능력보다 도전적인 기회를 선택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나간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창업자들에게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진혁(2017)의 연구에서는 리더들의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18].

2.4 가설설정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김문준(2018)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 박창기·김창완(2018)의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대표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창업자들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1]. 황상규(2013)는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기업가정신이 조

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에 대해 검증하였다[22].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비재무적 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과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3.1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변수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측정도구는 황인규·이우진·김도현(201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5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재무적 성과는 황보윤·배근석(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임진혁(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5개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3.2 표본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22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1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07부를 데이터분석에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설문 참가자 중 남성은 163명(78.7%), 여성

은 44명(21.3)으로 나타났다. 나이를 살펴보면 20대는 24명(11.5%), 30대는 60명(29.0%), 40세 이상은 123명(59.5%)이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은 11명(5.3%), 전문대 졸업은 19명(9.2%), 대학교 졸업은 99명(47.8%), 대학원 졸업은 78명(37.7%)로 나타났다. 멘토링 받은 시간을 살펴보면 1-10시간은 27명(13.0%), 11-20시간은 53명(25.6%), 21-30시간은 44명(21.3%), 31시간 이상은 83명(40.1%)으로 나타났다.

4.2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1은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비재무적 성과는 .721부터 .845까지 요인1로 묶였고 기업가정신은 .589로부터 .808까지 요인2로 묶였으며 자기효능감은 .629부터 .831까지 요인3으로 묶였다. KMO 값은 .871이며 유의수준은 .000으로 나타났다.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Variable | Item | Factor | | |
|---------------------------|------|--------|--------|--------|
| | | 1 | 2 | 3 |
| Entrepreneurship | E1 | .185 | .784 | .296 |
| | E2 | .164 | .772 | .264 |
| | E3 | .157 | .782 | .209 |
| | E4 | .088 | .589 | .163 |
| | E5 | .179 | .808 | .283 |
| Non-financial performance | P1 | .838 | -.062 | .176 |
| | P2 | .845 | -.042 | .216 |
| | P3 | .797 | .302 | .109 |
| | P4 | .769 | .256 | .039 |
| | P5 | .721 | .395 | .191 |
| | P6 | .785 | .250 | .209 |
| Self-efficacy | S1 | .114 | .422 | .629 |
| | S2 | .167 | .281 | .825 |
| | S3 | .180 | .238 | .831 |
| | S4 | .152 | .233 | .823 |
| | S5 | .192 | .180 | .686 |
| Eigen value | | 4.039 | 3.603 | 3.395 |
| % of Variance | | 25.246 | 22.517 | 21.218 |
| Cumulative % | | 25.246 | 47.763 | 68.981 |
| KMO=.871(sig=.000) | | | | |

4.3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값을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의 평균값은 5.906, 표준편차는 .936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5.473, 표준편차는 .976으로 나타났으며 비재무적 성과의 평균값은 5.048, 표준편차는

1.245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r=.602, p<.001$)과 비재무성과($r=.424, p<.001$)와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비재무성과($r=.439, p<.001$)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881, 기업가정신은 .853, 비재무성과는 .906으로 모두 .7이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다음의 Table 2는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 | Mean | S.D | Entrepreneurship (1) | Self-efficacy (2) | Non-financial performance (3) |
|---|-------|-------|----------------------|-------------------|-------------------------------|
| 1 | 5.906 | .936 | - | | |
| 2 | 5.473 | .976 | .602*** | - | |
| 3 | 5.048 | 1.245 | .424*** | .429*** | - |

* $p<.05$, ** $p<.01$, *** $p<.001$

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beta=.602,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되었다. 다음의 Table 3은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이다.

Table 3.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Self-Efficacy

| Dependent: Self-Efficacy | | |
|--------------------------|------------|--------|
| | Model 1 | |
| | β | t |
| Entrepreneurship | .602*** | 10.802 |
| R^2 | .363 | |
| ΔR^2 | - | |
| F | 116.691*** | |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자기효능감은 비재무성과($\beta=.429,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다음의 Table 4는 자기효능감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Table 4.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Non-financial performance

| Dependent: Non-financial performance | | |
|--------------------------------------|-----------|-------|
| | Model 1 | |
| | β | t |
| Self-Efficacy | .429*** | 6.795 |
| R^2 | .184 | |
| ΔR^2 | - | |
| F | 46.176*** | |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1에서 기업가정신은 비재무성과($\beta=.424,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2에서 기업가정신은 비재무성과($\beta=.260, p<.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모형2에서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1에서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보다 감소되었다. 모형1과 모형2의 유의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모형2에서의 유의수준은 모형1의 유의수준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2에서 자기효능감이 비재무성과($\beta=.272, p<.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가설3은 채택되었다. 다음의 Table 5는 자기효능감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Dependent: Non-financial performance | | | | |
|--------------------------------------|------------|-------|------------|-------|
| | Model 1 | | Model 2 | |
| | β | t | β | t |
| Entrepreneurship | .424*** | 6.706 | .260** | 3.377 |
| Self-Efficacy | | | .272** | 3.527 |
| R^2 (Adjusted R^2) | .180(.176) | | .227(.219) | |
| ΔR^2 (Adjusted R^2) | - | | .047(.043) | |
| F | 44.975*** | | 29.961*** | |

* $p<.05$, ** $p<.01$, *** $p<.001$

5. 결론

5.1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역할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비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들은 모두 채택되었다.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행연구 윤지수·현병환(2017), 임진혁(2017)에서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은 비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핵심 역할을 파악하였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비재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업가정신의 역할에만 대해 알아 보았다. 비재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변수로 개인 측면인 기업가정신 이외에도 조직 측면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 및 조직 측면에서 비재무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선행변수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과변수로 비재무성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구분하여 기업가정신이 이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성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변수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 S. Kim & H. K. Kim(2018). The Influence of Family Firms Succession Factors on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9), 375-389.
- [2] Y. M. Baek(2018).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Employability of the College Student-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13-120.
- [3] J. K. Lee & T. K. Park(2016).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outh Korea: Review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8(4), 95-120.
- [4] M. K. Kwon & H. S. Yang(2016).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fusion of industries :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21-37.
- [5] M. S. Won, J. H. Hong & J. H. Cha(2015). An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of S&M Business CEOs' Entrepreneurship.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9(1), 309-340.
- [6] J. Y. Kim(2017). The Convergence of the Servant Leadership of SMEs on Interpersonal Rel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65-170.
- [7] S. I. Kim & W. J. Lee(2016). Impacts of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of Business Incubator CEO's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utilization level of BI Supporting Servi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5), 1-13.
- [8] J. R. Kim(2020). The Effect of Future Entrepreneurs' Marketing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1), 131-140.
- [9] B. S. Yoon & C. K. Kim(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Business Capabilities on Job Creation Intention :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 Pas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20(9), 318-331.
- [10] Y. J. Han(2016). Research Trend of Entrepreneurship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121-131.
- [11] B. Y. Hwang & K. S. Bae(2017). Impact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Human Resource Innovation on the Firms' Innovation Activities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 Exploratory Research of KOSDAQ Compan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4), 1-14.
- [12] C. W. Park(2017). The Effects of Creative Integration Firm Talent and Labor-Management Partnership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Non-financial Aptitude of ICT SM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4), 77-96.
- [13] C. Fornell(1992).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The Swedish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56(1), 6-21.

- [14] Y. J. Kim(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art-up Performance: Focused on the Inter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4), 63-73.
- [15] A. Shapero(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 [16] A. Bandur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17] B. G. Lee & I. H. Jeon(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focusing on potential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213-230.
- [18] J. H. Im(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Leadership on Perceived Success : Focusing on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19] J. S. Youn & B. H. Hyun(2019). A Study on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38(3), 171-186.
- [20] M. J. Kim(2018). A Study of the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6(4), 1-11.
- [21] C. K. Park & C. O. Chang(2018). The Effect of Small Business Owner's Social Capital on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1-28.
- [22] S. K. Hwang(2013). The Effect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on Self-Efficacy and Firm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of Gyeongnam Region.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15(4), 345-356.

오 윤 정(Yun Jeong Oh)

[정회원]



- 1997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3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 2019년 : 송원대학교 간호

학과 조교수

- 2020년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시뮬레이션, 액션러닝
- E-Mail : agnes@nambu.ac.kr

조 명 기(Myong Gi Jo)

[정회원]



- 2019년 2월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전공(심리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진로상담, 행동관찰, 빅데이터창업
- E-Mail : 89sani@kwu.ac.kr